10.15686/fkl.2026..68.498

우리를 발명하는 글쓰기로서의 삶

-디디에 에리봉, 이상길 역,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문학과지성사, 2025.

정의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프롤로그: 자기를 발명하는 글쓰기를 넘어
2 실존적 기술로서의 삶의 서사화
3 노년은 (우리로서) 말할 수 있는가
4 에필로그

1 프롤로그: 자기를 발명하는 글쓰기를 넘어

내가 속한 대학원의 교수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대학을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61년생인 나의 아버지는 '지방 촌구석'에서 나고 자라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다녔기 때문이다.(어머니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조실부모하고 고등학교마저 중퇴한 아버지는 곧장 건설 현장으로 가서 '막노동'을 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가끔 설비 노동자로 현장에 나간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비가 많이 와서 일을 못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 나이에 힘들게 무슨 '일'을 하냐고, 야외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내가 묻자 아버지는 얼버무렸다.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으로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곤 했던 십여 년 전을 생각하면 치부를 숨기는 듯한 아버지의 태도는 새삼스러웠다. 그날 나는 이렇게 썼다. '아빠는 내가 자기 직업을 창피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오해다. 나는 아빠의 일과 계급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열등하다 여기는 아빠의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문장을 쓰고 나니 흙과 땀으로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친구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수치심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다섯 명의 가족이 한 방에 다닥다닥 붙어 자야만 했던 집을 벗어나기 위해 대학 입시에 걸었던 계급 상승의 열망도.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그러한 열등감을 '나'의 계급 횡단적인 지식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으로 매끄럽게 서사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자기 발명[1]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1 '자기 발명'은 푸코가 실존 미학에서 강조하는, 예술로서의 삶과 자아를 창안하는 윤리적 실천을 말한다. 이때 '자기'란 고정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생성·변화하는 관계와 경험의 총체다. 다만 모든 주체는 교차하는 권력 관계에 예속된 주체로서 규범과 담론에 저항하고 그것을 재전유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발명할 수 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윤리는 '자기 수양', '자기 배려'라는 말로도 설명된다. 푸코의 실존 미학에 관해서는 미셸 푸코, 심세광·전혜리 역, 『비판이란 무엇인가/자기수양』, 동녘, 2016, 93-124, 136쪽; 김수영, 「푸코의 실존 미학의 동시대적 의의: 페미니즘의 자기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43권, 한국여성철학회, 2025, 75-114쪽 참조.

내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앞에서 또다시 수치심으로 물드는 것이 아닐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방금 쓴 내용을 번복해서 다시 써야 했다. '그런데 아빠의 노동과 열등의식은 아빠 안에서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닐 테니 사실 나는 아빠를 창피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계급 탈주자'로서의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동안, 내가 만든 서사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과 고향과 출신은 얼마나 모래알처럼 우수수 손아귀를 빠져나갔나.

서울로 이주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출신에 따른 경제적 계급의식과 퀴어-페미니스트 문학 연구자로서의 자의식은 더욱 자주 충돌했다. 극렬하게 분열하는 정체성을 하나로 결정짓지 않고 그 자체로 사유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디디에 에리봉의 책『랭스로 되돌아가다』(이하『랭스』)[2]의 도움이 컸다. 에리봉은 프랑스 시골 랭스의 노동 계급 출신이자 파리의 퀴어-게이 지식인으로서 성적/계급적 낙인찍기의 이중구조가 실재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자기'를 대상 텍스트 삼아 분석한다. 이러한 자기 분석의 계기가 된 사건은 아버지의 죽음이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가 비로소 과거와 대면하게 된 에리봉은, 그가 벗어나고자 애썼던 과거—가족, 노동 계급, 빈곤, 모욕, 동성애 혐오—가 결국 자기를 (재)발명하기 위해 참조할 수밖에 없는 역사임을 깨닫고 이론적으로 '귀환'한다. 그는 부르디외, 푸코, 사르트르를 경유하며 자신의 삶을 정치화하는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는 로런 포니에가 정립한 '자기이론(auto-theory)'의 한 예시라 할 만하다.

『자기이론』[3]은 동시대 북미의 예술 현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번역·출간 이후 한국 문학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일인칭 글쓰기, 자기 서사가 부상한 맥락에서 자기 이론 개념은 유용한 데가 있다. 그럼에도 자기 이론이 수반하는 여러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나열해보자면, 허약한 자기(self) 개념을 마치 단단한 것처럼

2 디디에 에리봉, 이상길 역,『랭스로 되돌아가다』, 문학과지성사, 2021.

3 로런 포니에, 양효실·김수영·김미라·문예지·최민지 역,『자기이론: 자기 삶으로 작업하기』, 마티, 2025.

간주하는 경향, 자기 표현적 예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나르시시즘적 욕망에 대한 비-성찰적 태도, 퀴어-페미니스트 엘리트들의 인용 실천 및 연대가 지니는 배타성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가 쓰는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쓰는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누가 쓰는가' 혹은 '누가 쓸 수 있는가'에 뒤따르는 배타성에 관한 비판은 『랭스』 또한 피해갈 수 없다. 에리봉은 사회구조적 제약을 전유하는 소수자적 글쓰기의 해방적 힘을 역설하면서, 그러한 자기 발명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삶의 시간—을 모두에게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비판에 능한 에리봉은 이러한 허점을 모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죽음 이후 깨닫는다. 병들고 노쇠한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뒤 약 두 달 만에 급격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는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능이 얼마나 제한적인 신체적 자원인지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에리봉은 2023년 출간한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4](이하 『서민 여성』)에서 어머니의 생애를 다루며 2009년 『랭스』를 집필할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노년', '고령자', '취약한 신체'를 가진 주체의 실존과 정치적 주체화의 (불)가능성에 몰두한다.

중심이 '자기'에서 어머니라는 '타자'로 넘어간 만큼, 글쓰기의 방식 또한 변화한다. 에리봉은 철학적 개념화가 줄곧 누락시켜온 노년의 실존을 문학적 형상과 서사에서 찾으며 그것들을 어머니의 실제 삶과 겹쳐놓는다. 이론보다 실재로서의 삶이 우선하는 글쓰기, 자기를 경유하는 동시에 타자에 대해 말하는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마침내 철학 이론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는 책의 역자인 이상길이 '자기-(타자)-이론'이라고 칭한 글쓰기이자,[5] "자기를 쓰는 일이 곧 타인을 쓰는 일"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김미정이 강조한 커먼즈(commons: 공유자원, 공유지) 만들기로서의 글쓰기다.[6] 그렇게 에리봉은 자기를 발명하는

4 디디에 에리봉, 이상길 역,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문학과지성사, 2025. 이하 본문 인용은 괄호 안 쪽수만 밝혀 표기한다.

5 이상길 해제, 「'타자'를 위해 '자기'에 관해 쓰기」, 디디에 에리봉,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문학과지성사, 2025.

6 김미정, 「나를 쓰는 일은 어떻게 너를 쓰는 일이 되는가」, 『창작과비평』 제207호, 창작과

글쓰기를 넘어 ‘노년의 서민 여성’이라는 타자와 관계 맺는 글쓰기로 향한다.[7]

2 실존적 기술로서의 삶의 서사화

에리봉은 책의 1~3부에 걸쳐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상세히 되살리고 4부에 이르러서 실존주의, 현상학 등의 철학 이론이 그것의 내적 논리의 정합성을 위해 ‘늙음’을 망각하고 배제해온 문제를 비판한다. “‘신체’ 개념은 일상적 실존과 세계에서의 현존을, 혹은 정치 행동을 사유하기 위해 노화, 신체적 취약성, 질병 등을 지각 영역 바깥에 두어야 했을 것이다. 그로써 이 개념은 고령자들이나 자율성을 잃은 사람들을 거의 완전한 비가시성의 상태로 몰아넣었다”라는 언급은 ‘보편’ 철학을 자처하는 많은 이론이 정작 해방을 사유할 때는 편의상 개념적 층위에서 고령을 제거하고 있음을 적실히 폭로한다.(273-274쪽) 특히 에리봉은 자신도 즐겨 인용하던 사르트르의 개념들—‘기투’, ‘무화’, ‘서약’, ‘융화집단’ 등—이 “모종의 신체적, 정신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268쪽) 왜냐하면 이 개념들은 시간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모든 실천 양태는 미래에 대한 자기 투사가 가능한 주체에게만 성립한다.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매순간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동한다. (…) 우리의 모든 활동은 세계에서 우리의 현존에 대한 시간의 공외연성(coextensivete)을 통해 조직된다.”(96쪽) 쉽게 말해, 우리는 모두 시간 속을 살고, 삶은 필연적으로 시간과 함께 흐른다. 반면 죽음은 시공간을 멈춘다. 시공간 좌표의 상실을 곧 죽음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에서 시간은 어떻게 재조직되어 주체에게 감각되는가. 여기서 나는 책의 비판에서

비평, 2025, 304-318쪽.

7 푸코가 자기 수양에서 강조하는 ‘글쓰기’의 실천도 타자 배려와 관련이 깊다. 특히 그는 편지를 예시로 들며, 쓰는 주체는 글쓰기의 실천을 통해 자신과 관계 맺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타자와 관계 맺음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미셸 푸코, 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384-389쪽.

부터 거꾸로 거슬러 에리봉의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시간 속에 배치하고 구성했는지, 요양원 입소 후 죽음에 이르는 동안 삶의 기획이 왜 불가능해졌는지 살피고자 한다.[8]

에리봉의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십 년 동안 수술과 병실 입원을 반복했다. 그녀는 서서히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고 결국 '에파드(Ehpad)', 즉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만큼 완전히 의존적인 신체가 되었다. 그래도 에리봉이 보기에 어머니는 (때로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삶을 완전히 '포기'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시간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거나[9] 미래의 시간에 자기를 투사함으로써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에의 의지"를 미약하게나마 불태우곤 했다.(119쪽)

그녀가 죽기 육칠 년 전 게실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마친 뒤의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약 삼 년 뒤에 뮈종의 이웃 남자 앙드레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녀가 연하 유부남을 만난다는 사실에 보수적인 에리봉의 형제들은 "어머니는 정신이 나갔어"라고 말하지만, 청소년기부터 위반적 섹슈얼리티를 경험했던 에리봉은 브레히트의 단편소설 「채신없는 할머니」의 여성 인물처럼 이제 막 자유로운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어머니에게 모종의 연대감을 느꼈다.(130쪽) 노년(특히 여성)의 사랑과 섹슈얼리티는 퀴어의 그것만큼이나 공적 담론에서 지워져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에리봉의 어머니가 여든의 나이에 병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문안을 기다리며, 즉 미래

8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은 어떤 식으로든 '방향 지어진다'. "방향 지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몸짓에 의해 장차 올 순간들, 구체적인 기획들을 향한다는 것이다. 그 기획들은 크든 작든 때로 미세하든 언제나 개인적, 가족적, 친애적, 직업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창조한다"(95-96쪽)

9 에리봉의 어머니는 움직일 수 없이 방 안에서만 지낼 때,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F1 경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자신이 카레이서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중얼거린다. 변호사, 의사, 교사도 아닌 카레이서를 꿈꾸는 이 엉뚱한 상상과 욕망은, 에리봉이 보기에 불가능성이 불변의 조건으로 자리 잡은 삶에서 미래로의 자기 투사가 어려워지자 상상적 과거로 자신을 투사하기 위해 어머니가 강구한 일종의 회피책이다. 요양원 안에서는 몽상과 환영을 제시하는 텔레비전 화면을 매개로 한 시간의 재구성 전략마저도 완전히 무용해진다. (216-220쪽)

에 도래할 시간을 기다리며 삶을 연장했다는 이야기는 몹시 귀중하다.

어머니의 '첫 번째 삶'은 두 번째 삶과는 달랐다. 에리봉에 의하면 그녀는 아버지와 사는 동안 한순간도 남편으로 인해 행복했던 적이 없다. 노동 계급의 남편들은 대개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이었으므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광적인 통제와 집착적인 질투로 인해 남성은 물론 다른 여성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기업의 노사위원회가 기획한 여행은 다른 여성, 즉 남편의 동료 노동자의 아내를 만날 기회였다. 요양원 입소 직후 어머니를 찾아온 Y는 개중에서도 어머니와 친밀했던 여성이다. 에파드에서 만난 두 사람은 남편들을 향한 증오가 담긴 험담을 지루할 정도로 반복한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에리봉은 예속화의 원리를 상기한다. 페미사이드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이별이 불러올 실질적 위협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녀, 공장노동자로 일했던 그녀는 '물질적 재화'와 '안락한 삶'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포기하고 과거의 곤궁으로 추락하고 싶지 않았다. 계급 상향의 욕망을 내포한 이성애 핵가족 제도의 예속은 어머니-여성의 자율성을 앗아가는 동시에, 언젠가 나아질 미래를 막연히 약속하며 그녀를 어떻게든 삶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다. 그땐 적어도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서는 어떻게 '나쁜 삶'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일까. 에리봉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며 자주 '학대받고 있다'고 토로했는데, 그것은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지 않았다 해도 진실에 가깝다. 프랑스 보건 공공서비스 영역의 재원 부족은 요양원 시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진다. 돌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머니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러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생활을 견뎌야 했다. 이렇듯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사람으로서의 지위까지 상실하게 만드는 "체계적 학대"다.(114쪽)

그곳에서 늙고 병들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 사람들은 시간성 속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린다. 그렇게 "시간의 부재"로, "비시간"의 시간으로 침잠하며 노년은 실존의 기본 조건을 잃는다.(108쪽) 이러한 변화, 즉 요양원 입소 직후 뿌리 뽑힘의 충격으로 인해 급격히 병증이 악화하고 더 빠르게 죽

음으로 향하는 상황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슬라이딩 증후군'이라는 의학 담론의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 에리봉은 어머니가 죽고나서야 그것이 그녀에게도 해당함을 깨닫는다. 죽음에 저항하는 것이 곧 삶이라고 할 때, 이 삶은 생물학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에너지까지도 포함한다. 이제 에리봉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응고된 시간 안으로 고립되며 생존을 위한 무의미한 시도를 포기하고 자발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택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나는 이쯤에서 에리봉이 단지 어머니의 죽음을 '이해'하려는 소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정체성[10]의 균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특히나 여성 노인-어머니는 "가족 계보에 대한 지식의 보유자"로서, '나'를 친족 관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167쪽) 그러므로 어머니의 죽음은 곧 에리봉에게 가족 계보로부터의 도려냄이자 노동 계급에 속한 부모를 둔 아들이라는 역할의 상실을 의미한다. 과거와의 단절은 에리봉이 젊은 시절부터 그토록 바라왔던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자 그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출신의 기억은 그렇게 말끔히 삭제되지 않는다. 과거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자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리봉은 지울 수도 없지만 함부로 지워져서도 안 되는 과거, 즉 어머니의 삶을 붙잡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앞서 설명한 시간성과 삶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서사화의 욕망에는 살고자 하는 열망, 생의 의지가 전제되어 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기입하기 위해, 타자들과 존재론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에리봉은 자기 삶을 어머니의 삶과 함께 역사화·서사화한다. 에리봉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 '궤적'이 전개된 상이한 장들 안에서 나는 항상 '전기'와 '생애담'의 연속성으로 다시 이끌렸다."(163쪽)

이러한 서사화의 작용은 비단 에리봉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머니의 삶을 쓸 때 어머니의 개별적 삶은 '어느 서민 여성의 삶, 노년, 죽음'

10 에리봉에게 정체성(identity)이란 자기(self)와 마찬가지로 고정불변하거나 단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층위(registres)의 복합성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들'에, 사회 세계의 이 다양한 차원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155쪽)

이라는 공통의 시간-이야기로 기입된다. 그는 어머니 고유의 (그러나 샹파뉴 방언으로 불리는) 어휘와 억양을 수집하고, 일상생활의 단편들을 나열하면서 공장 노동자 출신의 연금 생활자인 어머니의 불연속적 삶을 연속적인 서사로 엮는다. 에리봉의 어머니는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녀의 생애 서사는 노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복원하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는 이론으로는 완벽히 포섭할 수 없는 실재적 삶의 차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에리봉이 자기를 경유해서 타자를 쓰고, 다시 타자를 통과해서 자기를 씀으로써, 타자가 스스로를 주체로서 발명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고자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노년, 고령자들이 '우리'로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3 노년은 (우리로서) 말할 수 있는가

노인들이 정치적 공론장에서 '우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예속적 주체의 정치화 가능성을 오래 탐구해온 에리봉에게 특히 중요했다. 그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자신의 사유에서조차 노년이 배제되어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철학 전반에 이러한 비판이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철학을 고령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푸코의 방법론과 맞닿는다. 푸코는 광기를 배제해온 역사를 고고학·계보학적으로 분석하며 역으로 사회가 광기를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본다. 이는 한 문화가 "자기의 외부로 구성한 것과 맺는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이다.(281쪽)

보부아르 역시 배제된 것과의 역사적 접합을 시도하며 자신의 저서 『제2의 성』(1949)[11]에서 "침묵으로 되돌려진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는 의지"를 품고 『노년』(1970)[12]을 집필한다.(282쪽) 하지만 보부아르는 이 책에서 앞서 제기한 질문—노인은 집합적 정치 주체로서 말할 수 있는가—을 건드리지 않는다. 『제2의 성』에서 여성들이 왜 자신들을 우리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지 자문했던 것에 비하

11 시몬 드 보부아르, 이정순 역, 『제2의 성』, 을유문화사, 2021.

12 시몬 드 보부아르, 홍상희·박혜영 역, 『노년: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책세상, 2002.

면 이는 아쉬운 전개다. 에리봉은 보부아르가 노년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도 노인들이 정치 집단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늘 '우리' 혹은 '사람들'이라는 일인칭 복수형으로 스스로를 칭했음을 언급하며, 비록 어머니가 노동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젊었을 적과 다르게 늙어서는 계급과 계급의식의 분리를 몸소 보여주곤 했지만, 한때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어머니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어머니, 좌파를 벌하기 위해 극우파에게 표를 던지는 어머니까지 전부 정치적 주체였음을 명백히 한다. 물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뒤 신체적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고서부터 '우리'의 불가능성을 인정이라도 한 듯 고립된 채 행동했지만 말이다. 에리봉은 묻는다. 그렇다면 요양원 노인의 말들을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제도,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모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 보부아르가 강조하고 에리봉도 동의하였듯 대변인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대변인의 존재만으로 충분할까? 실존적 위기에 처한 주체들의 삶은 대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곤란함은 주체화를 통한 정치 행동의 근본적인 한계를 건드린다.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의 행동과 발언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노년의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노년을 노년으로서 사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작업인가? 에리봉은 책의 결론부에서 결국 이들을 위해서 말하고 이들을 보이게 하자고, 즉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자고 말한다. 이 결론은 앞선 내용에 비하면 다소 소박해 보인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통해 에리봉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점에서 놀랍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문학적 글쓰기가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구체적·개별적 초상을 통해 집합적·역사적 상을 그리기. 그것을 통해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주체이기를 포기한 주체들을 정치화하기.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진실은 우리 모두 이변 없이 늙고 죽게 된다는 사실, 때로 노화와 죽음은 계급과 섹슈얼리티가 새겨진 신체라는 권력투쟁의 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파레시아의 윤리를 실천하는 자기 발명의 글쓰기는 이렇게 타자와 우리를 발명하는 글쓰기로 나아간다.

4 에필로그

나의 어머니는 요즘 시립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글쓰기를 배워본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수업에서 쓴 글을 모아 문집을 발간하기 전에, 서울 소재 대학에서 국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딸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나는 어머니의 글에서 상투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포착하고선 은은한 놀라움을 느꼈다. 자기-타자로 향하는 삶 쓰기의 방식이 내게도 허락된다면, 나는 이 글에서 어머니가 쓴 글 '엄마의 소유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함께 읽고 싶다.

> 엄마는 오랜 지병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아셨다. 앞으로 여생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자식으로서 엄마의 의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 집은 두고 엄마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났다.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를 이제야 만회하는 것 같은,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처지가 바뀌었기 때문일까.
>
> 엄마 집에는 새것이나 탐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부엌살림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들과 제각각의 그릇들. 머그잔은 짝이 맞는 것이 없다. 낡고 오래된,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엄마는 가까이 두려 한다.
>
> 어느 기분 좋은 날, 엄마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면서 말을 꺼냈다.
>
> "엄마, 책도 좀 정리하고. 베란다에 잡동사니들도 고물상에 갖다 줄까?"
>
> 엄마의 단호한 한마디. "그냥 두라."
>
> '내 소유물에 네가 왜 간섭이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쓴 평범한 문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장면을 본다. 어머니가 초등학생일 때 집을 나가 살았던 할머니. 이십 년 넘게 파킨슨병과 살아온 할머니는 손과 다리를 절고 있고, 어머니는 할머니는 돌보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하게 되었지만 가끔씩 만난다. 그리고 아마도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이고 다닐 잡동사니—불상, 달마 그림, 두꺼운 솜이불, 승복, 삼촌의 유품—를 떠올린다.